

감성개념 차원구조의 특징에 관한 연구

-아동청소년 및 임상집단을 중심으로-

문혜신 김진관 오경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정상 성인의 경우, 감성 개념의 내적 차원 구조는 쾌/불쾌 차원과 각성 차원이라는 2차원 구조에 원형의 체계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2차원 구조가 얼마나 보편적이고 일관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1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15개의 정서 관련 어휘로 이루어진 105개의 단어쌍에 대한 7점 척도의 유사성 평정을 시행하였으며, 연구2에서는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동일한 절차를 시행하였다. 다차원 분석 결과, 1차원(초등5년:74%, 중등2년:72%, 정신분열증 환자: 60%)과 2차원(초등5년: 18%, 중등2년16%, 정신분열증 환자: 11%)이 도출되었다. 정상 성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차원은 쾌/불쾌 차원, 2차원은 각성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따라서, 감성 개념의 구조에 있어서 쾌/불쾌 및 각성은 인지적 성숙의 단계나 인지, 정서적 손상에 관계 없이 매우 일관되게 나타나는 비교적 안정적인 차원 구조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발달 단계나 병리적 속성에 따라 각 차원의 비중치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주로 쾌/불쾌 차원을 통해 감성을 개념화 하는 특징을 보이며, 정신분열증 환자 집단의 경우, 1,2차원 모두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각성 차원의 경우, 비중치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내적 차원 구조의 타당성 및 제한점에 관해 논의하였다.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정서적 경험을 하며, 다양한 정서 경험에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거나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 이러한 정서 경험의 구조를 밝혀 보려는 여러 가지 이론적 접근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최근에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은 Russel의 차원 모형이다(Russel, 1978). 차원 모형은 Ekman(1972)이 주도하는 기본 정서 모형의 제한점을 지적하면서 기존 정서 연구 결과에서 얻어진 정서 경험의 구조에 대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새롭게 요인분석을 시도한 결과, 정서의 개념이 서로 독립적인 두 개의 차원, 쾌/불쾌 차원과 각성/수면 차원에 따라 원형적으로 분포한다는 주장을 통해 제기된 이론이다.

Russel은 이러한 정서 개념의 구조에 차원 모형을 적용하는 것 이외에도 언어적 개념화가 필요하지 않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하나인 표정을 통해 성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차원 모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얼굴

표정만을 통해 정서 상태를 정확하게 추론하기는 어려우며, 얼굴 표정을 통해 인식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유쾌한가 불쾌한가 혹은 이완되어 있는가, 격앙되어 있는가의 대략적 측면이라는 주장이다. 즉, 정서의 고통적 차원에 의한 판단이 우선적이고, 그 차원 영역에 해당되는 '혐오', '두려움'과 같은 범주들 중 구체적으로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하는 판단은 이차적이며, 표정 이외의 상황이나 관찰대상에 대한 부가적 정보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이다(Russel, 1991). 이와 같은 차원 모형은 표정 인식과정의 단계를 나누어 설명하고 구조를 가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서를 체계적으로 표정 공간과 연결시키는 규칙을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김영아, 김진관, 박수경, 오경자, 1997).

이와 같은 정서 개념의 구조나 표정을 통한 정서 인식의 내적 차원에 대한 차원 모형이 문화권에 관계없이 얼마나 일관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연구들(Osgood, May, & Morrison,

1975, Russel, Lewicka, & Niit)에서도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정서 개념은 쾌/불쾌, 각성이라는 2차원, 혹은 여기에 부가적으로 '역능'의 차원이 공통적으로 도출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이러한 2차원 구조는 정서인식이나 정서 개념을 포함한 정서 경험의 구조를 설명해 주는 비교적 안정적인 틀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정서 개념의 구조를 본 연구(Russel 과 Ridgeway, 1983)에서도 3-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 개념의 구조를 살펴본 결과, 아동에게서도 쾌/불쾌 및 각성 차원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연령에 관계 없이 2차원 구조는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이 문화적 차이나, 발달단계의 차이에 관계 없이 동일한 2차원 구조가 일관되게 도출되므로 아마도 이러한 2차원 구조는 정서 개념 및 정서 인식을 포함한 정서경험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하고 타당한 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쾌/불쾌 및 각성이라는 이차원 구조에 대한 비판 역시 제기되어 왔는데, 각성 차원이 도출되는 것은 정서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의 범주에 excited, aroused, sleepy, tired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들 단어가 정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조차 애매하다는 것이다(Averill, 1975;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 1993; 이홍철과 이만영, 1990). 또한, Watson과 Tellegan(1985)은 쾌/불쾌, 각성 차원을 재해석 하여 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차원을 독립된 차원으로 한 새로운 2차원 구조 모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의 범주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이냐에 관련된 것으로 김영아등(1997)의 연구에서도 제안하였듯이 성격이나 감각, 기분과 구분되는 정서를 미리 규정하기 보다는 광의의 개념으로써 '감성'이라는 영역으로 정의해 놓는 것이 정서 개념 자체 뿐 아니라 표정 등을 통한 감성 인식의 모델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성인을 대상으로 정서 관련 어휘 목록을 이용하여 도출해낸 2차원 구조가 아동 및 청소년이나 인지, 정서적 손상을 보이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

인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감성 개념의 체계를 2차원의 모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만약 동일한 감성 개념의 구조를 가진다면, 아동청소년의 발달적 특징이나 정신분열증의 병리적 특징이 내적 차원 구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1. 내적 차원의 발달적 특징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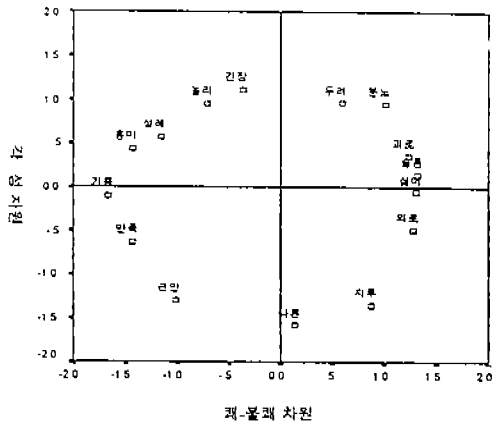
방법

1. 내적 상태 관련 어휘 목록 선정

정서 관련 어휘 분석을 통한 내적 상태의 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연구(김영아 등, 1997)에서 사용된 22개의 형용사 목록에 대한 유사성 평정과제는 아동에게는 다소 지루하고 과중한 과제 수행에 해당되므로 평정결과의 신뢰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형용사 목록을 단축하였다. 기본 정서 목록에 포함되는 단어와 쾌/불쾌 차원 및 각성 차원에서의 분포 양상에 따라 2차원에서 원형의 형태를 이루는 등간의 위치에 분포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15개의 형용사를 선정하였다.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정서 관련 어휘 분석을 통한 내적 상태의 차원 연구를 위해 수집된 231개의 형용사쌍 유사성 평정 결과 가운데 최종 선정된 15개의 형용사 목록들로 구성된 105개 단어쌍의 결과를 재분석 한 결과 동일한 2차원 구조가 도출되었다.

1차원은 총변량의 54%, 2차원은 35%를 설명하며, 2가지 차원이 전체 변량의 9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원상에 배열된 15개의 단어가 <그림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 대학생 집단의 차원 분석 결과

2. 아동 및 청소년의 감성 인식 내적 차원 도출 연구

피험자 서울 시내 00초등학교 5년생 80명과 xx중등학교 2년생 80명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도구 및 절차 최종 선정된 15개 단어를 두 단어씩 짝을 지어 구성한 총 105개의 단어쌍에 대해 7점 척도로 유사성을 평정하게 하였다. 단어쌍의 제시 순서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 순서를 달리한 3가지 세트의 목록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자료간의 비유사성 점수를 공간상의 거리 점수로 변환하여 차원을 도출하는 다차원 척도법(Multi Dimensional Scaling)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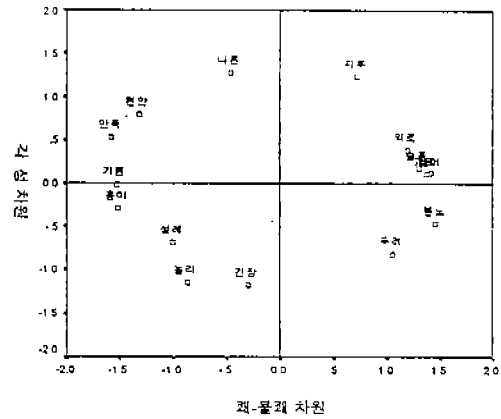
결 과

유사성 자료를 다차원 척도법으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5년생의 경우, 첫 번째 차원이 74%, 두 번째 차원이 18%로 총변량에 대한 두가지 차원의 설명량이 92%였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차원은 쾌/불쾌 차원, 2차원은 각성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중등학교 2년생의 경우에도 역시 동일한 2차원 구조가 도출되었으며, 1,2차원 각각의 설명량은 72%, 16%로 2차원이 전체 변량의 89%를 설명하였다.

초등학교 5년이나 중등학교 2년의 2차원상에 배

열된 15개 단어가 동일한 양상을 보이므로 초등학교 5년의 결과를 대표적으로 제시하였다<그림2>.



<그림 2> 초등 5년 차원분석결과

연구2. 정신분열증 환자 집단의 내적 차원 구조 분석

연구 1의 결과 아동 및 청소년 집단에서도 정서 인식의 내적 차원은 2개의 차원에 원형으로 분포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아마도 정서 인식의 내적 차원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서부터 발달하고 정립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쾌/불쾌 및 각성 차원은 범문화적으로 나타나는 정서 개념 혹은 정서 경험의 구조일 뿐 아니라 연령에 관계 없이 나타나는 내적 차원 구조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적 차원의 구조가 인지 및 정서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신구조의 통합에 어려움을 보이는 환자들인 경우,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정신분열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정신분열증의 특징적인 증상은 광범위한 인지 및 정서 장애로서(DSM-IV,1994) 따라서 이들이 정서개념의 내적차원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는지를 살펴 보는 것은 일반 정상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도출해낸 내적 차원의 2차원 구조가 병리적 특성을 가진 집단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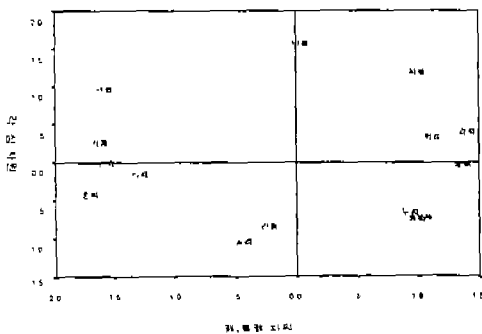
피험자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고 정신과 외래치

료를 유지하면서 서울 시내 모지역의 복지관과 경기 지역의 모 보건소에서 정신사회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환자 2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33.89세였다.

도구 및 절차 연구1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15개의 정서 관련 형용사를 이용하여 105개 단어쌍에 대한 유사성 평정 과제를 시행하였다. 이후 절차는 연구1과 동일하였다.

결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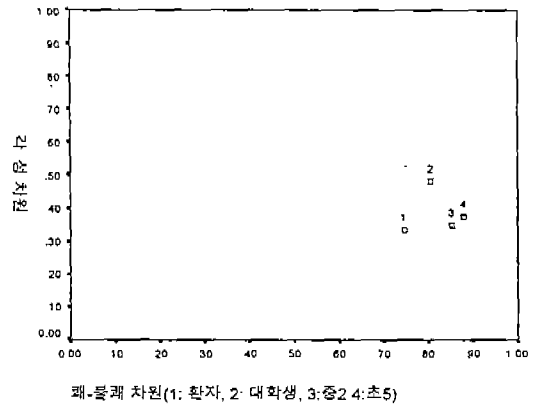
다차원 분석 결과, 연구1의 결과와 동일하게 쾌/불쾌 차원과 각성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 2개의 차원이 도출되었으며, 두 차원이 전체 변량의 71%를 설명하였다. 첫 번째 차원의 설명량은 60%이며, 두 번째 차원은 11%로 두 차원 모두 아동 및 청소년 집단이나 성인집단에 비해 설명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신분열증 환자 집단의 경우, 정서 개념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내적 차원의 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감성 개념의 내적 차원 구조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형 형태의 배열에서 특징적인 점을 살펴 보면, 두려움, 분노, 슬픔이 동일한 위치에 분포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정상 집단에 비해, 비교적 각성이 높으면서 부정적인 특징을 보이는 감성 개념의 경우, 구분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신분열증 환자 집단의 내적 차원 구조 분석의 결과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정신분열증 환자의 차원 분석 결과

이상의 아동 및 청소년 집단, 정신분열증 환자 집단, 성인 집단의 내적 차원구조 분석 결과 발달 단계나 병리적 측면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차원 구조는 일관되게 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집단마다 각 차원이 차지하는 설명량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각 차원의 비중치에 대한 비교를 위해 각 집단의 유사성 평정 자료 평균을 가지고 집단간 차이를 살펴 보았다.

아동 및 청소년 집단, 정신분열증 환자 집단, 성인 집단의 유사성 평정 자료의 평균을 산출하여 다차원 분석 방법 가운데 집단간 각 차원의 비중치를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INDISCAL을 시행하였다.



<그림 4> 집단간 차원 비중치 비교 결과

각 집단의 2차원에 대한 차원 비중치의 결과가 <그림4>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 및 청소년 집단의 경우 쾌/불쾌 차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정서 인식의 내적 차원이 주로 쾌/불쾌를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인 집단에 이르면 각성 차원의 비중이 증가하며, 쾌/불쾌와 각성이라는 분화된 형태의 2차원 구조가 확립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정신분열증 환자 집단의 경우, 2차원 구조가 정서 개념을 설명하는 설명량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1차원이나 2차원 모두 정상집단에 비해 정서 인식의 내적 차원을 설명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는 의

본 연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 개념의 구조가 2차원 상에 원형의 형태로 분포한다는 일반적인 결론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양상인지를 살펴 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 개념의 2차원 구조는 발달 단계상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속하는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며, 인지 및 정서적 혼란을 보이는 정신분열증 환자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쾌/불쾌 및 각성이라는 2차원 구조는 비교적 강력하고 보편적으로 정서 개념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이와 같이 비교적 일관되게 2차원 구조가 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마다 2차원 구조가 전체 정서개념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나 쾌/불쾌 차원 및 각성차원 각각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성인의 발달단계에 이르러서야 비교적 각성 차원이 정서 구조를 개념화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차원으로 공고화되는 것으로 보이며, 아동 및 청소년기에는 쾌/불쾌 차원이 비교적 강력한 정서 개념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성 차원에 따른 정서 개념의 분류는 아동 및 청소년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마도 '쾌-불쾌'에 대한 지각은 유기체의 생존에 직결되며 즉각적인 대처행동이 필요한 차원의 평가라면, '각성'의 경우는 개념 자체가 자신의 내적 변화에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적 정교화된 인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차원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와 일관되게 정신분열증 환자 집단의 정서 개념 내적 차원의 구조 분석 결과는 2차원을 통해 설명되는 변량의 수치가 매우 낮고 특히, 각성 차원의 설명량이 매우 작은 것을 볼 때, 인지적, 정서적 통합능력의 손상이 오는 경우, 정서 개념 구조에서 뚜렷한 해석의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손상 이후 정서

개념의 구조가 혼란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밝혀내기 어려우나 우선적으로 각성 수준에 따른 정서 개념의 분류에 어려움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표정을 통한 정서 인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서, 정신분열증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각성 차원을 낮게 평가한다는 연구 결과(박수경, 1998)와도 일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 결과는 감성 개념의 내적 차원 구조에 한정되는 것으로, 정서 관련 어휘라는 비교적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여 연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학령기 이전의 아동들은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며, 표정 자극을 통하여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달 단계나 병리적 특징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2차원 구조가 도출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감성 개념의 2차원 구조가 어느 연령에서부터 출현하고 정교화되는 것인지 발달적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 및 표정 자극을 통한 정서 인식의 차원 구조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면 구체적 자극을 이용한 감성적 인식의 차원과 추상적 단어들로 이루어진 감성 개념의 차원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발달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지를 밝혀 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인지 및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병리적 양상을 나타내는 집단-예컨대, 우울증, 사회불안, 경계선 성격장애, 정신분열증들에서도 표정을 통한 정서인식의 차원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표정을 통한 정서인식의 편파나 오류를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결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영아 김진관 박수경 오경자(1997). 정서 관련 어휘 분석을 통한 내적 상태의 차원 연구. 한국 감성 공학회지.
- 박수경 오경자(1998). 표정을 통한 정신분열증 환자의 정서 인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1993) 정서의 구조: 한국어

- 정서단어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07-123.
- 이만영 이홍철(1990). 형용사 서술 의미의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2, 118-138.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IV*. Washington, DC: Author.
- Averill, J.R.(1975). A semantic atlas of emotional concepts. *JSAS catalogue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5, 330(Ms. No. 421).
- Ekman, P.(Ed).(1972). Universal and cultural differences in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s. IN J.K.Cole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71 (pp. 207-283).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Osgood, C.E., May, W.H., & Miron, M.S.(1975). *Cross-cultural universals of affective meaning*.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Russel, J.A., Lewicka, M., & Nitt, T.(1989). A cross-cultural study of a circumplex model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848-856.
- Russel, J.A. & Ridgeway, D. (1983). Dimensions Underlying Children's Emotion Concepts. *Developmental Psychology*, 19, 795-804
- Russel, J.A. (1978). Evidence of convergent validity on the dimensions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1152-1168.
- Russel, J.A. (1991). Culture and categor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0, 426-450.
- Watson, D. & Tellegen, A.(1985). Toward a Consensual Structure of Mood. *Psychological Bulletin*, 98(2), 219-235.
-